

박 “창조경제” 문 “공정경제” 안 “혁신경제”

■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위기의 한국경제 청사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창조경제를 모토로 하는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경제정책 구호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문재인 후보는 공정경제를, 안철수 후보는 혁신경제를 각각 내세웠다.

**박, 선도·고용률 지향·질적 성장형
문, 성장·분배·일자리 ‘4두 마차론’
안, 경제민주화·혁신 ‘두바퀴 경제’**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의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경제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 후보는 성장·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론’을 강조했다.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자신이 직접 맡기로 한 데 이어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 부자감세 철폐, 복지 투자 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새로운 복지를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창조경제론은 그동안 추격·모방형 경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경제에서 고용률 지향의 경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개방·공유 정부, 창업국가, 스피드채널 채용시스템,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K-무브(Move) 운동’,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를 통해 선순환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안 후보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강원도 춘천 베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강원도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내빈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KBS 스포츠홀에서 열린 ‘2012 사업유치원 교육자의 날’에 참석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원주 흥업면 원주의로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 첨단로기기 테크노타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정치개혁 없인 이길 수 없다”

강도높은 혁신안 제시…민주 쇄신 압박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7일 세종대 초청강연회에서 정치개혁안을 강도 높게 주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파 간 공천권 나눠 먹기 패지 및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이미 주장해온 내용이지만, 경제적 당론의 폐기까지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안 후보의 이런 발언은 문 후보 측이 최근 정치쇄신과 후보단일화 문제를 분리 대응하기로 하고 정치쇄신에 방점을 찍는 것과 맞물리는 상황이다. 안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18일 “민주당 등에서 정치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하는 것이 만큼 강연을 통해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치공방과 거리를 두려는 캠프의 전략과 달리 안 후보 스스로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민주당의 변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후보단일화를 하더라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단일화 논의에 집중해온 민주당에 대해 정치혁신 논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 “정치쇄신-단일화 분리하겠다”

안 후보와 마찰소지 없애 연대 그리 유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그리 만들기 위해 정치쇄신과 후보 단일화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고쳐 잡았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의 말씀은 문 후보가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미 천명했던 바와 맥락이 같다”며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가고 정치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의논하면서 가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 전만 해도 문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대한 안 후보의 생각이 뭔지 같고 잡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쏟아내던 것과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측은 캠프 내부의 정치쇄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외부인사가 주축인 ‘시민캠프’가 이날부터 3일간 은·오프라인에서 정치혁신 릴레이 대토론회를 열고, 다음주에는 가장 ‘정치혁신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쇄신 관련 제안을 받는 전국순회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응할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국회의원은 18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것으로 확실하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안 후보의 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안 후보가 단일화 대화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철수 후보는 꿈이 크고 갈 길이 먼 분인데, 그 꿈과 갈 길에 어떤 점이 더 보였는지 본인이나 더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 특정한 2선 후보와 특정세력 백의종군 논의가 있다”며 “해당하는 분들이 곧 총정여린 행동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화가 성사되지

특정세력의 백의종군 의미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친노세력이 임명직을 맡지 않겠

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호남지역민의 요구는 두 가지인 것 같다”며 “하나는 현재의 민주당과 정치를 새롭게 하라는 쇄신 요구이고, 또 하나는 호남의 비전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여정부 확대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이 호남사람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며 “문 후보가 추석 전 광주를 방문해 진정하게 사과했는



대도 호남인의 가슴에 와 닿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동료동계 등 구 민주계 인사들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정치를 마감할 시기 내 대선배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 좋은 선택이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해도 평생 걸 어운 길을 바꾼 것은 지도자 답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대선 선대위원 추가 인선

부위원장 4명 등...홍보소셜미디어 전략기획팀장 공훈의

새누리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병석 국회의원 등을 임명하는 내용의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어났다. 선대위 대변인은 박선규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추가 대위 임명했다. 선대위 홍보소셜미디어 전략기획팀장 공훈의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과 4선의 송광호·정갑순·원유철 의원 등 4명을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단은 앞서 임명된 이해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김진선 최고위원과 나경률·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8명에서 12명으로 늘

확단장에는 공훈의(사진) 전 위키트리 사장, 대선후보 문화특보에는 이대 김진선 최고위원과 나경률·유승민·정병국 의원 등 8명에서 12명으로 늘

임종석 전의원

홍소심서 무죄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46) 전 민주당 의원이 홍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신상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매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은천모뎀) 대3234㎡, 244280㎡ 감정가 42억4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244489㎡ 감정가 41억4천 최저가 21억4천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12억8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생촌동(원룸) 대294㎡, 21494㎡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동(목욕탕)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7억 10억 ▷매매가 4억 4천(협의후결정)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용봉동(하이포텍스)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북구 대촌동(2층공장)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화정동(예식장)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5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원동 대3238, 233090 72억 25억 3층나이트 화정동 대1094, 244489 41억5천 17억 8층예식장 대림동 대230, 231716 7억4천 5억2천 5층근린 두암동 대4570, 21256 12억9천 5억2천 4층원룸 수원동 대651, 212386 13억9천 5억7천 4층상가 신안동 대4706, 211123 18억2천 12억7천 2층상가 목포동 대1786, 21408 4억8천 2억1천 단층수원원 보성읍 대685, 21763 7억2천 1억8천 2층상가 전북김제 대8076, 25004 25억 10억 2층물류창고 전주주신 대665, 23988 11억4천 5억8천 2층나이트	신안동 대372, 21198 12억2천 4억3천 5층숙박 신안동 대227, 21004 7억5천 3억3천 5층리모델 순창읍외 대330, 2951 6억8천 2억2천 4층도매 채정동 대36, 2207 4억7천 1억9천 3층일부 나주내동 대46, 2148 1억8천 8천 1층일부 신안동 대353, 21314 13억 5억8천 5층도매 화순도곡 대1904, 26228 26억 18억 4층무인텔 화순도곡 대1905, 26228 26억 18억 4층무인텔 대림동 대204, 2683 5억1천 2억1천 5층도매 영양읍산 대4599, 21704 5억5천 2억 3층도매	나주내동 대788, 212857 16억 4억6천 단층공장 광양읍 대6611, 213902 24억3천 17억3천 단층공장 담양읍외 대10991, 212002 8억12천 5억7천 단층공장 해남읍 대20848, 212386 10억 1억9천 2층공장 나주동서 대3958, 212053 15억 8억7천 단층공장 무안읍 대41028, 212888 49억 17억7천 3층공장 통영읍 대3102, 211656 13억5천 6억4천 단층공장 나주동서 대29710, 211826 17억3천 11억 3층공장 영광읍 대85512, 214288 68억4천 22억4천 3층공장 완도읍 대4447, 212612 10억 4억5천 단층공장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

경매투자

- ▶ 경매 배우면서 투자하실 분
- ▶ NPL /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 ▶ 교육 / 임상 활동비 등 550만원
- ▶ 배우면서 단독 / 공동 투자 가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